민선 8기 출범 2주년

황인홍 무주군수 "무주다움 완성 최선 다할 것"

무주군이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지역소멸 위기,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대응력과 역동성으로 승부하겠다며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무주군은 행사 규모는 줄이고 노인 일자리 현장을 비롯한 장애인 노인종합복지관 위문, 군립요양병원 건립 현장을 비롯한 무더위 쉼터 등 주민 삶의 현장을 찾아 혁신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1일 기념행사에서 황인홍 군수는 먼저, △오늘보다 나은 무주를 위해 '자연특별시 무주'의 산림과 하천, 계곡 곳곳을 관광 명소로 만들고 △'무주다운 문화'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 모두를 풍요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태권도'를 무주의 전략사업으로 키우는 한편, △스마트팜 등 현대화된 농업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농업 경영모델 창출을 위한 청년 농업정책 강화 의지를 피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각 국·실·과·소·읍면장들과 함께 무주읍 지남공원에 위치한 충혼탑을 참배했으며 무주군 공직자 2백여 명과 함께 '군민이 바라는 무주 & 무주가 그리는 미래'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김범석 지부장과 무주농협 곽동열 조합장, 구천동조합 김성곤 조합장은 NH농협은행이 '무주상상반디숲'에 도서 구입비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또 설치미술가 박성태 작가는 개관 축하의 의미를 담은 미술작품을 기증해 감사패를 받았다.

안전재난과 배점숙 팀장(지방전산주사)과 농업지원과 하현진 팀장(지방농촌지도사)이 2024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문화예술과 김보문 주무관(지방행정서기보), 농업지원과 전병갑 주무관(지방운전주사보), 설천면 최형민 주무관(지방행정서기보), 농업정책과 김진아 주무관(공무직)은 우수공직자로 선정돼 군수표창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군민 위한 행복 장수 만들 것"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최훈식 장수군수는 1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후반기 역점 전략을 제시했다.

최 군수는 2주년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 공직자들과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과를 이룬 만큼, 각종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살고 싶은 장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취임했을 때보다 최근에 장수군의 행정 퀄리티가 높아지고,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정말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며, "강점을 더 특별하게, 장수군만의 방식으로 행복장수를 만들어가겠습니다"고 후반기 군정 방향을 밝혔다.

다가온 민선8기 후반기 장수군은 6가지 분야를 주요 추진 목표로 삼아 나아갈 예정으로, 취임 시부터 강조해 온 청사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후반기 주요 목표는 △적극행정과 현신으로 확신을 주는 군정 △100만 관광인구 및 국제산악관광도시 비전 실현 △생활밀착 정책으로 군민행복지수 UP △살고싶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 △100년 미래를 대비한 농업 기반 구축 △SOC 확충으로 미래 경제권 중심지 도약이다.

마지막으로 최훈식 군수는 "지난 2년 동안 장수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큰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민선8기 후반기에도 군민들과 처음 가졌던 약속과 다짐을 잊지 않고, 모두가 염원하는 '행복 장수' 건설을 위해 군민만 바라보며 한걸음씩 전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기념식 개최 · MZ세대와 소통

전춘성 진안군수가 취임 2주년을 맞아 MZ세대와 소통했다.

전 군수는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직원들과 간소한 기념식을 가진 후 MZ세대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군청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영상시청, 기념사, 기념촬영 순으로 일체의 축하공연 없이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전 군수는 "오늘의 진안은 어제보다 나아졌고, 진안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날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군수는 진안사통팔달센터로 자리를 옮겨 MZ세대 청년들과 만났다.

간담회에는 영화감독, 카페 대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MZ세대 청년 20여 명이 참여했다.

전 군수는 "여러분이 바로 진안의 희망이다"며 "청년들과 소통의 자리를 통해 쓴소리, 단소리 가리지 않고 더 넓은 가슴으로 청년들의 꿈과 생각을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청년협의체-청년센터 상생, 운영방안의 필요성, △진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청년 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귀농귀촌 유치와 안정적 정착 지원,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MZ세대 간담회 후 전 군수는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된 진안군,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녹색성장 도시(Green City) 진안으로의 대도약을 위해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9대 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는 1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진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원구성을 완료했다.

동창옥 의장

이루라 부의장

이날 7명의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진안군의회는 이날 의장에 동창옥 의원(민주당, 나선거구)을 선출했으며, 부의장에 이루라 의원(무소속, 가선거구)을 선출했다.

상임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장 이미옥 의원(민주당, 나선거구), 산업건설위원장 이명진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이 각각 선출됐다.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동창옥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민생 현장에서 군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루라 부의장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 및 동료의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며,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대 진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장수군의회에서는 1일 오전 10시 제363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후반기 의장에 최한주 의원, 부의장에 유경자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김광훈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남수 의원을 선출했다.

최한주 의장

유경자 부의장

이날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한 국희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선거를 진행했다.

제9대 장수군의회 후반기 최한주 의장은 당선인사말을 통해 집행부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통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동료의원님들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 될 수 있도록 막중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유경자 부의장·김광훈 행정복지위원장·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장님을 충실히 보좌하여 장수군의회를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후 장수군의회는 충혼비를 찾아 참배한 후 관내 주요기관을 방문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필리핀 마갈레스 시장과 간담회 가져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달 28일 필리핀 마갈레스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스민 안젤라 시장, 자네사 앤 데 라마요 시의원을 비롯한 마갈레스시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자스민 안젤라 시장은 "진안군에서 MOU체결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마갈레스시의 농업인들이 한국의 농업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다"며 "진안군을 방문하여 농업 시설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둘러봤는데,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해 주신 진안군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민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안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농촌 인력이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 우수한 인력이 진안군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마갈레스시에서 오신 근로자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우리 지역 인력난 완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운영

진안군청소년수련관(관장 한효임)이 지난 6월 중 총 3회차에 걸쳐 마령고등학교와 함께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높이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마령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라는 주제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강의(5월 31일),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원탁토의(6월 14일), 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정책제안을 해보는 기관탐방(6월 28일)으로 총 3회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학년 청소년 20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과제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분야(교육분야, 여가 및 문화분야, 교통분야)에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토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3회차 기관탐방에서는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이 참여하여 군의회의 기능과 군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결과를 발표한 청소년들의 정책 의견을 듣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작은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학당 스터디 캠프 입시컨설팅 운영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지난 2주간 토요일마다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장수꿈의학당, 장수학당 스터디 캠프 및 입시컨설팅'을 운영했다.

행사는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내 학습공간 부족으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간 중 장수꿈의학당과 장수학당 참여 중·고등학생 중 90여 명이 스터디 캠프와 입시컨설팅프로그램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재단은 군민회관에 마련된 임시 독서실을 개방해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고3 학생의 경우 입시컨설팅도 지원에 나섰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